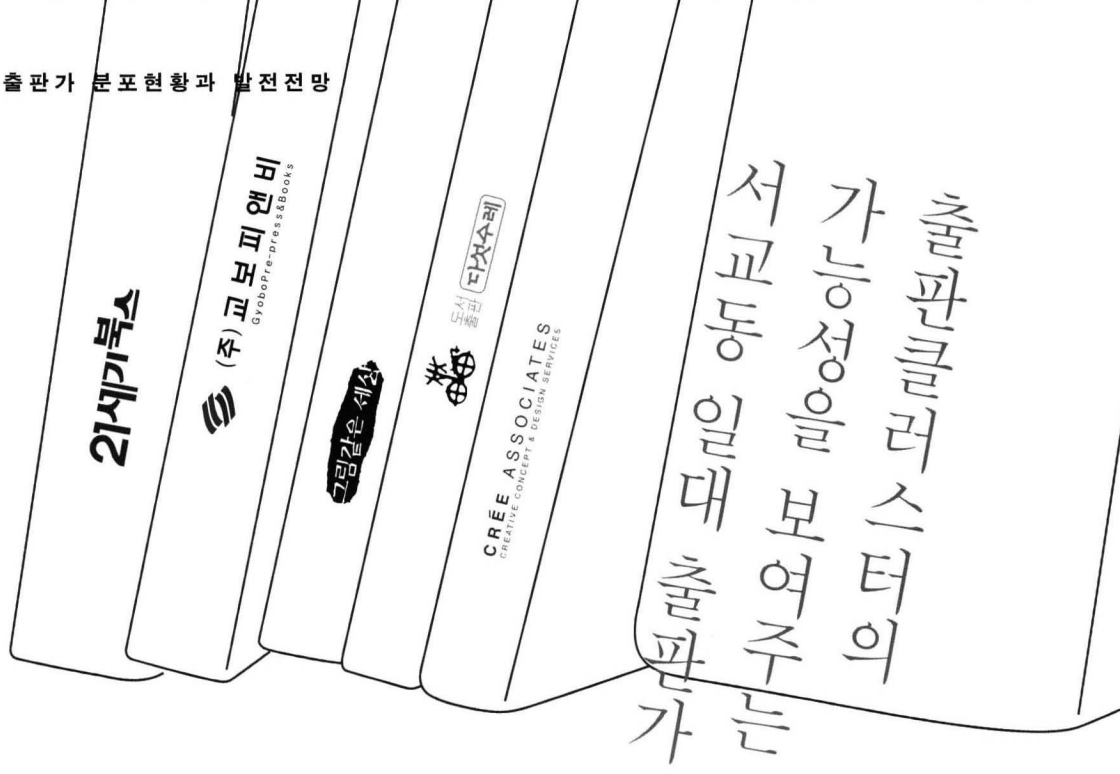


출판클러스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서교동 일대 출판가

클러스터Cluster란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테면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과 컨설팅 등이 한 군데 모여 있는 종합단지 같은 것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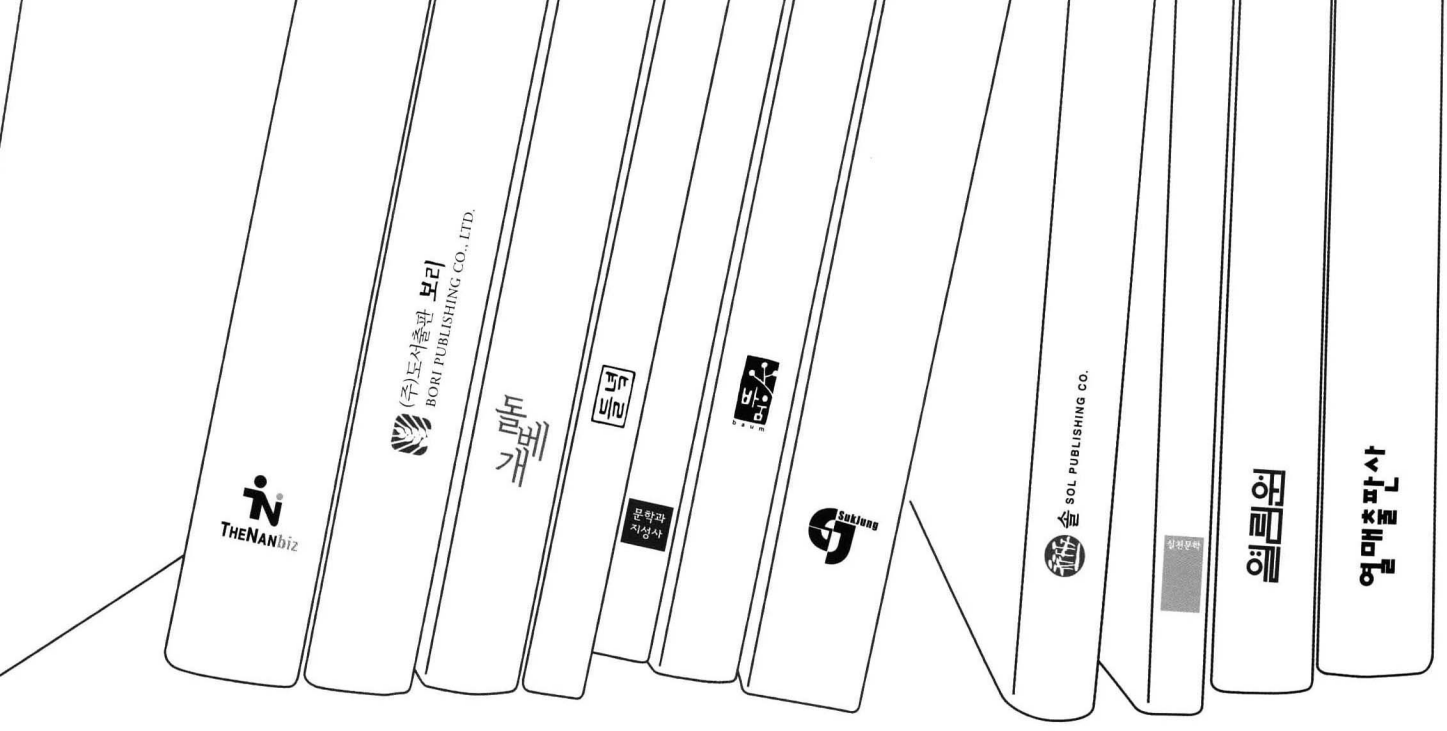
출판계에도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출판가가 형성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대규모의 출판단지가 조성중인 사실을 감안하면 서교동 일대의 출판가 형성은 출판계에서 별도의 주목과 관심을 요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교동·동교동에 출판사 등록이 된 업체는 문학과지성사, 열림원, 소소, 삼인, 이마고, 이산, 이가서, 이레, 이룸, 다섯수레, 실천문학사, 보리, 당대, 더난출판사, 해냄, 북21 등을 비롯해 현재 200여 사를 헤아린다. 서교동 부근으로의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고 있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출판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교동 출판가 형성의 소사를 살펴보면, 먼저 문학전문 출판사인 문학과지성사가 통의동, 아현동, 신수동을 거쳐 1989년 현재의 위치에 들어서 1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이레와 우리교육이 1993년 터를 잡았고 1994년에는 필동에 있던 실천문학사가 서교동에 자리를 잡았다. 1995년에는 신수동에 있던 솔출판사와 신촌에 있던 보리가 옮겨왔고 청파동에 있던 다섯수레는 1996년 사옥을 서교동으로 이전했다. 1997년에는 우리교육이 서교동 안에서 사무실을 옮겼고 1999년에는 성산동에 있던 돌베개와 이룸출판사가 서교동에 사무실을 냈다. 이미 1993년 서교동에 들어와 있던 이레가 사옥을 마련한 것도 1999년이다. 2000년에는 무학동에서 열림원이 사옥을 지으며 이전했고 신수동에 있던 일빛도 서교동에 사무실을 냈다. 2001년에는 대림동에 있던 이후가 서교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처음부터 서교동에서 창립된 출판사들도 적지 않다. 1996년에는 바다출판사가 서교동에 설립됐고, 1998년 나무생각이, 2001년에는 이마고와 휴머니스트, 2002년에는 이가서 등이 차례로 서교동 일대에서 사무실 등록을 했다.

마포구 서교동 464-41번지에 위치한 미진빌딩에는 1997년부터 미진사, 북21, 해냄 그리고 북에이전시인 임프리마코리아가 차례로 들어서 가히 종합출판 오피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해냄은 열림원 바로 옆에 신사옥을 건설중이다. 동교동 서교동 이외에도 생각의나무 새물결, 명진출판사들이 들어서 있는 연남동까지 포함할 경우, 이 일대 출판가의 규모는 좀더 넓어진다. 1998년부터 서교동에 자리 잡은 이산출판사 강인황 사장은 서교동 일대에 출판사들이 대거 몰린 것이 IMF 이후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다.

"서울은 경제와 소비의 중심이 강남입니다. 하지만 책문화에 한해서는 강남 중심이 성립되지 않아요. 광화문, 종로가 중심이 되고 있죠. 도서유통의 중심이 광화문과 종로라는 것입니다. 서교동은 지리적으로 광화문과 종로가 가깝고, 도심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서, 개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출판사를 창업하기에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요."

2001년 동교동에서 서교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작가정신의 박진숙 사장은 강 사장과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출판환경의 입지로서 서교동의 뚜렷한 장점은 없어요. 하지만, 홍익대와 미술학원 등을 중심으로 세련된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곳이 서교동이라고 생각해요. 기획편집자들이 문화적인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한 측면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에요."

1993년부터 줄곧 서교동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교육 윤형진 총무부장은 출판클러스터로서의 서교동 일대가 가진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론사들이 모인 신문로, 광화문, 여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미대가 유명한 홍익대가 위치해서 디자인 사무실이 많다는 것도 출판을 포함한 인쇄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곳이 젊은 문화의 현장이라는 측면도 출판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서교동 일대 출판사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서교동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해냄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는 박은미 씨는 서교동이 편집자가 일하기에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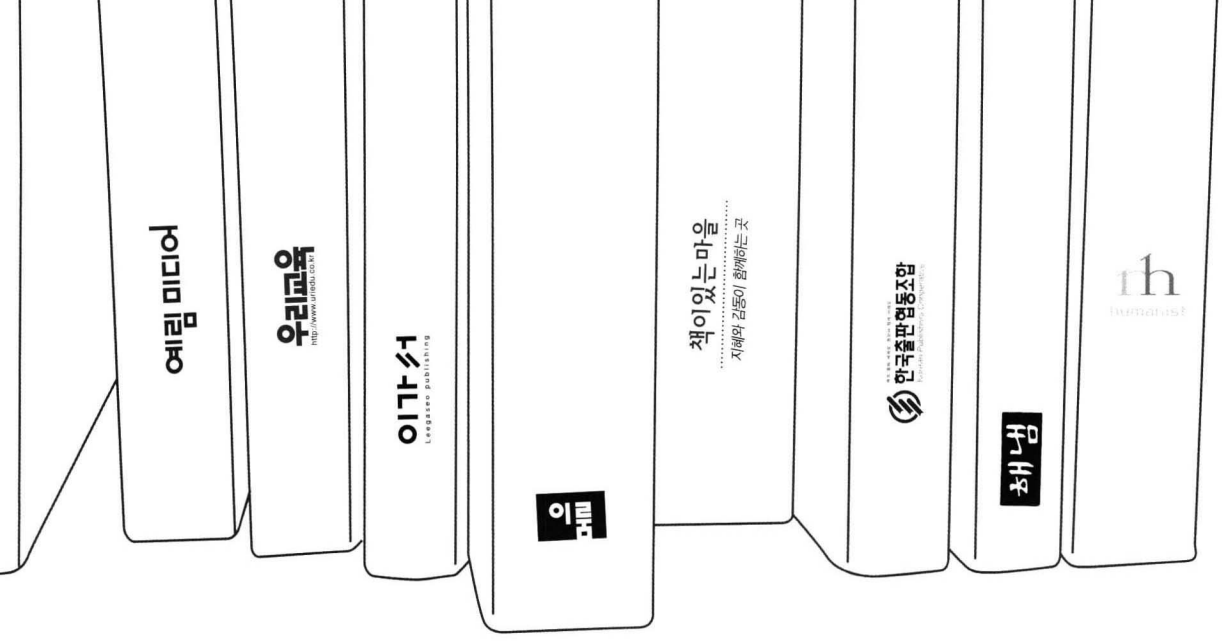
"전에 서초동에 위치한 출판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 비해 서교동은 많은 부분에서 편리해요. 우선 출판사들이 모여 있어 정보교환이 쉬워요. 이를테면 편집자들끼리 동호회나 스터디그룹 등을 조직하는 것도 수월하구요. 필름출력실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사실 서교동 동교동 일대에는 이펙, 아트미디어, 푸른서울, 경운기획 등의 10개의 필름출력소들이 모여 있어, 서교동에 위치한 출판사들의 필름출력 수요를 너끈히 담당해 낸다.

북21의 제작담당 이종률 씨는 일산 장항동에 모여 있는 인쇄소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제작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서교동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인쇄소가 차로 20여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인쇄감리를 하기가 수월하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교동 일대에는 출판사와 필름출력소 외에도 김은희 정계수 씨 등의 디자이너 사무실과 전문필자 및 번역가들의 집필실, 그리고 임프리마 코리아, 신원, 한성 등의 북에이전시 등의 출판 유관회사 그리고 어린이도서연구회 같은 유관단체들도 들어서 있어 소박하지만 출판클러스터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서교동처럼 출판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 간다神田 진보조 지역에 이와나미와 소학관 등의 출판사와 고서점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서교동 출판가와는 그 규모나 분포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서교동 일대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출판클러스터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과제가 많다. 먼저 서교동 일대 출판



사들 사이에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출판특구 지정 같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주북시티와의 발전적인 연계성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파주북시티와 서교동 출판계를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두 출판 단지는 그 생성 배경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파주북시티가 치밀한 목적의식과 대의명분 속에서 인위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사례라면 서교동 일대의 출판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서교동 출판가 형성은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설명이 가능해요. 일제시대 용산 마포 쪽에는 인쇄소가 많았는데 해방 이후 출판사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들어섰던 거죠. 그러다가 점차 서교동 쪽으로 옮겨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출판문화는 독특해서 문란한 상거래 질서와는 별개로 출판인들 사이에 대동문화적이고 인간적인 교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교동 쪽에 출판사들이 들어선 것도 그 같은 인간적인 유대에서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서교동 출판가가 우리시대의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진원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겠죠."

서교동 출판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될지를 지켜보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출판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초벌그림이 될 것이다.

취재 김도언 기자

서교동·동교동 등록 출판사 명단

가람문학사 가메 갈무리 개똥벌레 거로미디어 거리문학제 건설연구사 게임문화 경문사 경음사 공간미디어 공감사 공옥출판사 교육목회 국가교육정보센터 국제예술사 굿모닝미디어 그루 그린북 글동산 금탑 길벗 나라사랑 나무같이 나무생각 나무심는사람 나무의꿈 나우미디어 남풍출판사 너와나미디어 네오북 노벨과문화 녹색출판사 누림 느낌이있는나무 다섯수레 달리 당대 대인교육 대현 더난출판사 데미안 도도출판사 도서출판느림 도서출판세상속으로 도서출판여산 도서출판책 도서출판태성 도서출판해들누리 돌베개 동방출판사 동양문고 동화문화사 두두출판사 디자인신문사 또하나의문화 라임 롱셀러 멀티정보사 명경 무진출판사 문예기획 문일 문조사 문학과지성사 문학마을 미래로 미래시대 미진사 민예사 민중서원 민컴 바다출판사 바움 법우사 베드로서원 벽호 보라매 보리 복두출판사 복자서원 북21 비단길 비전21 비해당 사역원 사이버출판사 사조문화 삼경문화사 삼양미디어 삼양출판사 삼원문화사 삼인 삼희 생각나라 샨티 서강출판사 서치방 서현 서화 석정 선영사 파란출판사 성안당 성진 세상속으로 세창출판사 세훈문화사 소소 솔렘 솔밭 송천문화사 수박컴퍼니 숨쉬는 돌 스테디북 시대공론사 시대문학 시대의창 시마을 시아출판사 신발끈 신우 실천문학사 쌈지 아라크네 아름드리 아스카코리아 아침이슬 엠엔제이 여강출판사 여린 열림원 영인기획 영인아이넷 영재교육원 영화 예본 예술세계사 예지원 오늘의책 우리교육 우용출판사 우일 울림 웅지교육 유아나라 은행나무 의학문화사 이가서 이레 이룸 이마고 이목 이산 이제이북스 이지북 이후 일빛 자음과모음 휴머니스트 (가나다 순)